



(1998년 9월 15일 황간)

- 전시민 전영역의 복음화 운동
- 기독교 연합운동
-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 민족복음화 전략도시 운동
- 세계복음화 지원운동

FAX(0361)257-1260

-새회장 권오서 목사, 전회장 정상교 목사-

권오서 목사는 1988년 4월3일 순천중앙감리교회 제26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였으며 강원도 경찰청 경목실장등 여러방면의 복음화 사업과 지역사회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다.

성림교인 배의 선교회 및 교회인 중국 절림성 용흥시 용흥성교회당이 용흥시 정부로부터 역사문화재 2호 문화재로 지정되어 문화시설로 활용된다. 총회는 유물로 지정된 교회의 복원 기공식을 4월6일 현지에서 성대하게 개행하였다. 이 때 용흥성교회당장은 용흥시의 문화재로 지정해 보호받게 되었으며 역사의 흐름과 함께 대조 빛을 발하게 되었다.

에 대한 추도식을 거행했다.
30일은 선교국등 13개국의 위원
(이사)선가와 진국 총회에 참가할
총대를 선출하였고 목사안수식을
끝으로 연회를 마쳤다.
"선교와 봉사로 21세기를 열어
가는 연회"라는 표어를 제다짐한
모든 회원들은 선교와 봉사에 전력
을 경주하세 된 것이다.

었다. 안형순 이사장은 4월3일 오후2시 세종호텔 소홀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장기기증상담

24시간 빛의전화 ☎ (국번없이)1588-1589

강원지역본부 ☎ 0371) 766-0440 /011-899-

0126 사무국작 조경전지도사

조남진 장로(순복음춘천교
회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로연합회 총회에서 연합회장

춘천성암감리교회(허태수 목사)는 구교회 부지위에 새 예배당을 건축하고 3월13일 봉헌예배를 드렸다. 대지 781평, 연건축면적 352평의 예배당과 목사관은 7억5천만원의 건축비가 소요되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초교회

1대교구장 전희동 목사 2대교구장 유화철 전도사

3대교구장 김일승 목사

장로 : 조준환 최준익 주승희 김원준 백원일 이주식

연로신 : 장기호 김재현 조준석

심방전도사 : 안정환 이영숙 전성우

교육전도사 : 이복환 남궁록 한승기

사무전사 : 윤경미

파송선교사 : 김주현 최은순

김일승 주 환 목사

백합성가대 대장 : 김효주 지휘 : 안영숙 최성희 반주 : 이경진 김주영	호산나성가대 대장 : 임은희 지휘 : 이성명 반주 : 최지나	갈렐성가대 대장 : 최희숙 지휘 : 심정미 반주 : 김명준	감리회성가대 대장 : 조은자 지휘 : 김영희 반주 : 송미영
---	--	---	--

시온성가대

대장 : 김진현

지휘 : 조준환

반주 : 임유경

임마누엘성가대

대장 : 이경숙

지휘 : 한승기

열로이성가대

대장 : 조은숙

지휘 : 이현숙

온케 사비성가대

대장 : 임명숙

지휘 : 이경진

200-002 강연도 춘천시 효지2동 651

☎ 교회사무실 253-2741 담회장실 253-2742 목사관 253-2743 FAX 241-2741

사설

2000년 부활절 기해 새롭게 출발하자

오는 4월23일 부활절은 21세기 첫 번째 부활절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 1885년 4월5일 언더우드 목사, 아펜젤러 목사에 의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래, 116번째 맞는 부활절이다.

지난 1세기동안 부활절 예배는 교회 별 또는 초교파 연합으로 교회인과 밖에서 여러가지 모양으로 드러져 왔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시랑진 세 이기고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성도들은 무인전선 이기시고 부활 승하신 예수님을 찬송한다. (찬송가 154장)

교회는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참가하는 믿음으로 부활주일인 40일을 사순절 기간으로 정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와 구세기도 동경한 삶과 부활신앙 소유를 위해 힘쓴다.

오늘 교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듯이 부활절을 준비하고 예배했다면 부활하는 참신앙을 소유하게 되었을 것이며 따라서 교회와 우리 사회는 새롭게 변모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이와같이 부활과 부패가 만연되고 악취가 짙지 않은 것은 죽은 신앙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와 성도들이 죽은상태일 때 바른말을 할 수 없고 바른모습을 할 수 없어 세인들의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기독교는 세속의 한 종교로 변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 교회 나만을 생각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교과관, 교단관, 교회관이 깨어지고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이 일어나 구데가 된 갈라디 2천년 첫 부활절을 맞이 무릎꿇고 통회자복하고 여제의 잘못과 미움을 사상으로 치유하고 새출발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결집된 힘을 가지고 춘천 도성을 성시화하여 한 생명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었으면 한다.

직장에서 기독교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때와 장소 환경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변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할 수 없는 것이다.

신자란 다 신자다 신자다워야 신자지... 신자답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인 것이 오늘의 현실이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직장에서 기독교인임을 은폐하거나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일을 기피한다는 것은 신자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는 어쩌면 신자답지 못한 삶에 더 익숙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는 방법이라고 신앙과 현실을 이분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속해있는 직장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우리는 직장을 통해서 살고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곳으로써 나의 전도지역이요, 목양지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직장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Calling이라는 의미로서 직장일도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임을 깨닫고 열심을 다하여하며 반드시 결

산이 있다는 사실을 간파해서야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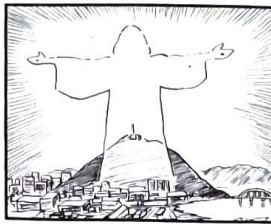
춘천에는 40여개 직장에 선교회가 조직되어 있고 10년전 직장선교연합회를 조직, 직장인구원 사역과 춘천성시화 사역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직장선교회는 직장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 직장기독교인들의 신앙양상과 복음전도를 통해 지역교회를 지원하고 신도들에게 전도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소속교회에서 훈련받은 교인들이 복음의 열의인 직장에서는 무능하고 나태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교회와 직장, 자신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직장인 전도를 방관하는 교회라면 교회성장을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직장기독교인은 직장교회의 교인으로써 직장 동료들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일과 언어 행동으로 전해야한다. 이는 예수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이다. 만약 직장교회가 허물어져 간다면 그 직장기독교인은 직접적인 책임을 지어야하며 지역교회는 연대책임도 지어야 할 것이다.

聖市漫評

김춘배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부활하는 춘천

독자후고

전도해야 할 교회에서 싸움이라?



이상순 장로

춘천신사신문 2월호에서 "전도길 막는 세우는 교회"라는 내용을 읽고 오늘 교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관심을 기울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며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개네기 힘든 말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전도를 위해 감사의 생활을 하는 교회를 찾아보기 어려운 때입니다. 세상은 부패하고 어지럽고 무질서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주님께 사랑을 나누며 용서하며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현실의 교회는 교회성도와 목자간의 갈등, 불순종, 교회 회계관리비의 미흡으로 재정의 불투명, 군림하고자 하는 독선의 교회 운영방식과 명예욕과 물욕으로 퇴보되어 가고 있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교회 자체내의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는 것이 먼저이며, 투명성 있고 민주적인 교회운영과 감찰목사의 무독의 묵화와 미흡목회론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교회도 민주적이고 개방적이어야 하며, 제2의 종교개혁으로 목회자의 정신과 교회 중직들의 '순종과 감사'의 긍정적인 신앙이 본이 되어야 성서와 복음화 사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받으신 것을 잊고 목회자와 성도들의 거리감이 좁아져야 하며 군림하는 자세보다는 복음전파의 동역자로 활동하고 기독교 자체내의 회계관리비가 개정되고 잘 적용되어야 합니다.

회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지극히 무절제한 회계관리, 목회자의 재정관리는 교회의 강령과 문제로 연결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관용을 베풀어 믿음의 사람으로써 하나되기 위해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기도하고 순신하여 화목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교회

자체내의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는 것이 먼저이며, 투명성 있고 민주적인 교회운영과 감찰목사의 무독의 묵화와 미흡목회론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교회도 민주적이고 개방적이어야 하며, 제2의 종교개혁으로 목회자의 정신과 교회 중직들의 '순종과 감사'의 긍정적인 신앙이 본이 되어야 성서와 복음화 사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받으신 것을 잊고 목회자와 성도들의 거리감이 좁아져야 하며 군림하는 자세보다는 복음전파의 동역자로 활동하고 기독교 자체내의 회계관리비가 개정되고 잘 적용되어야 합니다.

회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지극히 무절제한 회계관리, 목회자의 재정관리는 교회의 강령과 문제로 연결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관용을 베풀어 믿음의 사람으로써 하나되기 위해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기도하고 순신하여 화목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교회

▶춘천장로연합회(회장 허종구 장로)는 4월9일 오후5시 평강감리교회당에서 운영위원회와 함께 헌신예배를 드렸다. 또 5월13일 헌신위원들과 함께 청량수발전소를 견학하고 산성기도회를 갖고 회했다.

▶춘천장로총연합회(회장 이영규 장로)는 4월15일(토) 오후2시 석사감리교회당에서 제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순회 근무목사의 설교로 예배드렸으며 회동위원을 선출했다. 회장으로 선출된 김홍배 장로(도교육청)는 앞으로 1년간 연합회를 이끌게 된다.

▶한림대학교 기독교인 연합예배는 4월6일 오후7시 사회과학관 대강당에서 직장선교회, 기독교 수회, 기독교 학생회(C.C.C., J.V.F., J.D.M., Y.W.A.M.) 25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 드렸다.

▶24장로회 산성기도예배 춘천지회 24장로회(회장 김홍배 장로)는 춘강중교회 신임장로 박영호 목사로 3월15일 부부봉독으로 구국기도 산성을 했다. 모든 회원들은 광천원 지도목사(중앙감리교회 원로목사)의 설교와 함께 산성기도를 많은 은혜를 받았다.

▶춘천의사회(오정수 회장)는 6월 공명빌딩 회의실에서 장기기증운동에 적극 동참을 약속하고 사후기증, 사후신장기증, 뇌사 장기기증, 골수기증, 화장유연사, 신장기증 등을 하기로 결의하고 배드 로명환장 조준제 장로를 비롯한 44명의 의사 회원으로 등록했다.

▶춘천장로교회(회장 이영규 장로)는 4월8일 오후2시 춘천교도소 테니스장에서 목사님들을 초청, 장로님들과 함께 경기를 가졌으며 앞으로 계속 이러한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명예기자 김부희 장로)

선교회 소식

▶38클럽 아르헨티나선교 지원 춘천지회 초교파 평신도 모임인 38클럽(회장 장준호 장로)은 금년 1월부터 아르헨티나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신동천 목사님을 돕기 위해 월별 후원금을 보내고 있다. 또 군선교를 계속사업으로 장병위원,학교등을 후원함으로써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춘천성시화를 위한 목요기도모임의 선교찬양에 주역을 감당하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TCCF)춘천지부는 매주 화요일 오후7시30분 낙원동 성일가구3층에서 교사들의 영적성숙을 위한 성경공부 및 독서토론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연락처: 242-8803/019-263-8803 박영규(봉의여중교사)

▶춘천기독교방송 어린이합창단(단장 신종철 안수집사)은 4월2일 순복음교회본전성전 저녁예배에 참석하여 특별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드리고 은혜를 받았다.

▶예수전도단 춘천지부(대표 김봉욱 목사)는 3월27일~4월1일까지 예수 춘교회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00 봄 전도학교"를 개최하고 문화목사(서울지부장)와 한정우 간사를 강사로 초청, 전도교육을 실시했다.

▶장원기독교인연합회(회장 이영규 장로)는 3월24일 오전11시30분 부안 학교수에서 첫 정기모임을 가지고 12월에 열리는 제4회 전신회를 가톨릭과 연합으로 불우이웃돕기 자선전신회를 열 것을 검토했다.

△서양: 이영주,김정희,김광남,김춘배 △서각: 이은식,한영호 △서예: 김영은,황재호,이만진,김본호,김종호

△디자인: 노용국,이이경 또 한국장로교회에 준비위원회 주취로 11개지역 기독교음악가초대 전을 4월10일 개최하였으며 강원지역은 5월16일부터 21일까지 춘천 평생교육정보원에서 전신회를 가진다.

춘천 성시화를 위한 총력 전도대회

춘천시민은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총력전도대회가 기독교연합회 주체, C.C.C 대학선교회 주관으로 7월7일부터 9일까지 춘천에서 실시된다.

대학생선교회는 전국에서 잘 훈련된 1천명의 학생들과 춘천의 1백개 교회에서

선전된 평신도들을 훈련하여 함께 전도하고 7월9일 저녁 이동원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호반내세체육관(예정)에서 새신자전도집회를 하게 된다. 춘천시내 모든 교회는 10명이상의 전도요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고 행사주관 관계자는 말했다.



홍진근 신우회(김창희 회장)는 3월27일 춘천제일장로교회(조기산 목사)에서 헌신예배를 드리며 특별찬양을 했다.

춘천의 모든 직장선교회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강원도청 직장선교회

회장 김봉욱 안수집사 찬양부장 정혜섭 집사
부회장 최형선 안수집사 봉사부장 김동식 집사
총무 양승일 집사 서기 최병범 집사
기도부장 박재복 안수집사 회계 김미경 자매
성서부장 임광혁 집사

주소: 춘천시 봉의동 15번지
☎ (0361)249-5012 FAX (0361)255-8169

춘천시청 직장선교회

고문 배계섭 시장 회계 김웅은 집사
김진삼 장로 신교원 집사
민병익 장로 김남철 장로
회장 양봉남 안수집사 협동2대원 김남철 자매
부회장 이준명 안수집사 이문자 집사
박상자 집사 황은주 집사
총무 이현호 집사 문매자 집사
홍동우 김동한 안수집사

주소: 춘천시 옥천동 111번지
☎ (0361)250-3609 / 250-3560

한림대학교 직장선교회

고문 홍영길 안수집사
회장 김웅일 안수집사
총무 김정일 자매
회계 유준순 자매

주소: 춘천시 후평2동 192-1번지
☎ (0361)250-7110 FAX (0361)251-2756

한국통신 춘천전화국 직장선교회

회장 허광웅 장로
부회장 홍관호 집사
총무 이동우 집사
회계 노경옥 집사

주소: 춘천시 소양로2가 175-5번지
☎ (0361)250-5700 FAX (0361)253-9014

강원도교육청 직장선교회

회장 김웅배 장로 총무 정동준 안수집사
부회장 권윤녀 집사 회계 김미미 자매

주소: 춘천시 사동동 84번지
☎ (0361)258-5221 FAX (0361)258-5250



회장 진상용 집사 지도 명위식 목사
부회장 황석홍 집사 총무 이병오 집사

주소: 춘천시 후평2동 192-1번지
☎ (0361)250-7110 FAX (0361)251-2756



기독교계 소식 News

교계단신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강원노회** 95회차 정기노회가 3월27,28일 화천시내 장로교회에서 개최되었다.

◆ **강리교 동부연회 산하 춘천권역(춘천,홍천,화천,철원,연변부흥 선교교회)가** 3월19일~22일까지 석사리교회 대성전에서 강문호 목사(강보라선교회 담임)를 강사로 모시고 개최되었으며 드러린 헌금은 춘천교회관 건립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 **순복음춘천교회(김주환 목사)**는 4월2일 오후6시30분 만천상선전에서 사업자축복기도회 및 동선교회 임원 합동기도회를 가졌다.

◆ **소망성결교회 남산교부**는 3월16일 성서학기도모임을 주관했으며 개교회가 기도모임을 주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종철 안수집사, 대표기도 조정국 장로, 열림선교단의 특별찬양, 강영구 부목사가 설교했다. 장로12명으로 구성된 열림선교단의 기탁할주는 모든이에게 감명을 주었다.

◆ **춘천제일장로교회(박상호 목사)**는 4월1일 오후3시 상반기 제일장학금수여식을 가지고 춘천지역 중,고,대학생 35명에게 일선백도만유친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또 본교의 권사회는 매주 목요일 오전10시 교회식당에서 강원도인목회회가 주최하는 '소년소녀가장들이 반한들'에 동참하고 4월 한달간 봉사하게 된다.

◆ **광장리교회(한기배 목사) 청년부**는 3월25일 오후6시 늘사랑장로교회 청년부와 첫 연합예배를 시작으로 "춘천청년들의 밤"을 정기적으로 열고 성경공부와 찬양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 **춘천중앙장로교회(권오서 목사)**는 4월5일 박영구 권사(남윤선교회)를 초청, 전도간중 시간을 가졌으며 13일 농공교 테니스장에서 코우친전 테니스대회를 개최했다.

◆ **춘천침례교회(황명찬 목사)**는 4월2일 교회창립기념예배를 드렸으며 9일 제2회 남천도의 헌신예배가 있었다.

◆ **평화리교회(한 국 목사)**는 4월2일 독일선교를 위한 찬양집회를 가졌으며 22일 오후7시 창립기념 시민초청 성가제를 열고 23일 오전10시 부활절 및 창립22주년기념 연합예배를 드리고 당일 저녁예배부터 26일까지 돈물목사를 강사로 부흥회를 개최하며 29일 오전10시30분 목회자 세미나를 가질 계획이다.

◆ **춘천중앙성결교회(윤철중 목사)**는 4월23일 오후2시 부활절 지역별 찬양경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춘천동부장로교회(임신영 목사)**는 5월7일(주일) 오후4시 새생전일당 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 **동원리교회(정삼문 목사)**는 4월16일 오후4시 본교회당에서 신장장로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취임한 장로는 엄대선,황병찬,이병식 권사이며 시내 여러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의 축하를 받았다.

◆ **강남불문장로교회(김근수 목사)**는 3월부터 성서화운동본부 후원교회로 등록하고 매월 일정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용천교계소식

◆ **용천군신우회(김자경 회장)**는 4월11일 정오 용천읍 미도식당에서 용천신우회에 서무하시는 신금희 전도사님을 초청, 정오기도회 및 오찬이 있었으며 매월 1회 정기적인 기도회를 갖기로 했다. 17일 오후7시 용천동부교회(장병두 목사)당에서 4월 정기예배 및 신우회 창립1주년 기념예배를 위한 협의회가 있었다.

◆ **용천동지방 구역별 선교부흥집회**
용천 동지방(이재호 감리사)은 4월2일부터 11일까지 용천,내면(2),서석,내촌,동면 등 6개 구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선교대회를 열고 용천 지역 선교와 복음화 사업을 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 **용천동지방 청장년 연합회 헌신예배**
용천동지방 청장년연합회(회장 이상훈장로)는 4월20일 오후7시 창촌장리교회당에서 헌신예배를 드리고 동지방 청장년 연합체육대회 참여 등 2000년 사업계획 추진에 따른 협의회를 가질 계획이다.
(용천 명예기자단 부장 이상순장로)

◆ **용천회개장교회(제규형 목사)**는 4월25일 오전11시 교회당 헌당예배와 임직예식을 가질 예정이다.

◆ **용천의향장로교회 창립25주년 기념감사예배 및 임직식**
용천의향장로교회(김광성 목사)는 4월15일 오전11시 교회창립25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으며 임직식을 갖고 은혜의 시간을 나누었다.
△ 장로장립: 강성진, 어기성, 조복원
△ 집사안수: 김상철, 이문수, 이수현, 정형만
△ 권사취임: 강경록, 고순자, 김복희, 석양선, 송미의, 윤봉춘, 이점숙, 이정옥, 전영자, 최영자

(용천명예기자 윤상기집사)

동정

◆ **영광장 목사**
석사리교회 담임목사는 3월28일부터 30일까지 본교교회에서 개최된 제59회 동부연회가 은혜 중에 마칠 수 있도록 주중교회로 교회당,문화시설등 모든 편의를 제공했다.
4월2일 담임회 회의에서 앞으로 있을 연회감독 출마의지를 밝힘으로 교회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정삼문 목사**
춘천기독교 교역자연합회장(샘밭침례교회)은 역대 회장 및 임원들과 함께 3월24일 포천지역에서 1일 세미나를 열고 동원연합회의 사역에 대해 협의했다.

◆ **박상호 목사**
춘천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는 4월4일 오후2시 성구고등학교 교정에서 열린 윤영원목회 회의에 참석했고 5일 오전11시 동성장로교회 장로회임직식에서 설교하였으며 6일 오후3시 한국전적 강당에서 가진 삼우장학회 장학금수여식에 참석했다.

◆ **한 군 목사**
강리교 춘천북지방 감리사(평화리교회)는 4월7일 오후11시 화천 불모장리교회당에서 정기목회회를 주관하고 사회평신도부 주관으로 등반을 통해 회원들의 건강증진과 신상기도

로 신앙 무장의 기회를 마련했다.
◆ **윤정철 목사**
성결교단 부총회장(중앙성결교회 담임)은 5월1일부터 4일까지 서울독립문성결교회에서 부총회로 인도하기로 결정하였다.

◆ **윤태오 목사**
늘푸른장로교회 담임목사는 4월3일 전남순천 순광교회 사경회를 인도했으며 23일 무산선교사 파송예배를 인도하고 24일 김포 늘푸른교회 설립준비 차 방문할 예정이다.

◆ **영신영 목사**
춘천동부장로교회 담임목사는 4월10일 오전10시 원주신림영성수련회에서 열린 한우장로교 강연지역대회에 초청하여 참석하였다.

◆ **이원호 목사**
소망성결교회 담임목사는 5월8일부터 3개월간 미국,구라피지역 등 사도들의 전도여행 코스를 따라 자전거전도하는 사역을 체험할 계획이다.

◆ **한기배 목사**
광장리교회 담임목사는 3월22일부터 23일까지 경북 자곡으로 강연도 내 각 경사를 순방했다.

◆ **신성균 목사**
열림침례교회 담임목사는 3월23일 성서학기도모임에서 "영혼을 사하는 마음"이란 주제로 설교하였다.

◆ **권오서 목사**
춘천중앙장리교회 담임목사는 3월25일 원주신림영성수련회에서 가진 새천년부부세미나에 강사

로 참석하였다.
4월7일 오전11시 남부교회에서 열린 교회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4월10일 교역자 연합회 총회에서 제40대회장으로 선출됐다.

◆ **정경호 목사**
춘천C.C.C.대학생교회 대표간사는 3월30일 오후7시30분 월드비전 대강당에서 열린 성서학기도모임에 참석, 축도하였다.

◆ **임광호 목사**
대성침례교회 담임목사는 3월30일 저녁 7시30분 월드비전 3층강당에서 열린 성서학기도모임에 참석, 설교하였다.

◆ **박상철 목사**
제일성결교회 담임목사이며 예수사랑운동 대표는 3월16일,23일 성서학기도모임에 참석, 합심기도를 인도해 성령충만한 시간을 가졌다.

◆ **강영구 목사**
소망성결교회 부목사는 3월16일 성서학기도모임에 참석, "복음의통로"란 주제로 설교하였다.

◆ **이영규 장로**
춘천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장(석사교회)은 4월15일 석사침례교회당에서 열린 제11차 정기총회를 주재 하였다.

◆ **여경숙 장로**
장로연합회장(중앙성결교회)은 4월9일 오후5시 평강침례교회에서 운영위원회를 주재하였으며 매주 목요일 월드비전3층강당에서 성서학기도모임을 주관하고 있다.

◆ **김영옥 장로**
춘천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 수석부회장(소망교회)은 4월15일 제11차 정기총회에서 차기회장으로 선출되어 향후 1년동안 연합회를 이끌게 되었다.

◆ **이승문 장로**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3월22일 평강지역 어린이,노약자를 위한 금식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금식소 시설은 정신인이 지원하고 월드비전은 1천5백만원의 출연금과 금식소 및 운반차량 1대를 구입, 250명을 대상으로 주거지를 방문금식한다.

"죽음으로 끝남니까"

정용진

죽음으로 끝남니까?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남니까?
그렇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많습니니다
물이나 나무나 짐승은 끝이 납니다
말이 아무리 영리해도
원숭이가 아무리 사람 흉내를 내도
코끼리나 소가 아무리 커도
사자나 호랑이가 아무리 무서운
짐승이라도
돌그네가 개가 아무리 재주돌
부러도
그것들은 다 죽음으로 끝남
그입니다.
그들은 왜 그러까요
그것들에게 이성도 양심도 영혼도
자유의지도 없는 그저 동물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사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므로
이성이 있고 양심이 있고 영혼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고, 언어가 있고,
손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도 영원한
존재 이지요

영원한 존재인 사람은 죽음으로 끝
날 수 없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요
사람들은 너무 쉽게 말합니다
어디 그 까지겠 죽어 버려
어디 그 까지겠 죽어 버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
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
주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말입니다
영원히 다시 살아나
아름답게 다시 사신 것처럼 말입니다
죽음 후에 다시 살아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니
이렇게 믿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정용진 목사

- 황촌장리교회 담임
- 1998. 7. 신인도단
- 문인회 회원
- 감리교인회 회원

신청용 목사 설교집 출간



이모스 선지자

이모스 선지자는 팸발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여섯시간 메시지를 전했으며 그것을 문자로 작성한 것이 이모스서이다.
학문이 깊지도 못하고 남다른 업적이나 공로가 없지한 설교자료들 후대에 전하는 것이 귀한 일로 생각되었기에 35년간 설교한 내용 중에서 34편을 선정하여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라는 설교집을 출간하게 되었으며 아무쪼록 후대의 목회와 성도들의 신앙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드리고 있다.

본 설교집은 춘천남부제일장리교회를 담임하면서 탈고하고 1999년 10월4일 삼성인회에서 출판하였으며 가나안으로 가는 길, 부흥하는 교회, 복 있는 성도,

부활신앙을 소망하는 자의 생활 등 34편의 주옥같은 설교를 실고 있어 설교자들에게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금년 4월 중 다른 설교집을 출간할 계획이라고 했다.



감리교 동부연회를 참관하고



이학규 장로
(석사리교회)

제2회 동부연회(김영기 감독)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120여명의 도내 감리교회 대표들이 춘천석사교회에서 "선교와 봉사로 21세기를 열어가"는 연회"라는 주제에 은혜스러운 연회를 열었다.
연회는 연회회와 각 지방회의 입장으로 시작되어 개회예배와 성찬,예식,김영기 감독의 인사말씀과 지방 감리사들의 보고, 각 기관과 본부 각국의 사업보고, 예,감리보고, 사업보고위원회 회의의회를 거쳐 새로운 사업 확장, 문화향진예배(환신용 목사,이진호 목사,권영덕 목사), "순교 순국자 최인규 권사의 삶과 신앙"출판기념예배, 추도예배(고 안창권목사, 전남숙목사, 최은덕목사, 박문종목사), 30년이상 장기 근속자 표창식(임탁창 목사)과 16명),그밖의 교육과 선교 공로자 표창식이 있었다.
이번 연회에서는 4명의 새로운 목사를 안수하고 정회원 3명과 준회원 2명을 허임시켰다.
각 교회는 예산의 10%를 사회봉사비로 책정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연회단위의 농,어,관산선 선교위원회를 지방단위까지 확산 운영하기로 했으며 총회 실행위원회에 임시 임원총회 개최도 건의하기로 했다.
국내의 선교사업 위원회(위원장 임탁창목사)는 "선교 최후선으로 21세기"를 열어가자는 감리교회"에 힘쓰기로 하고 국내국외의 선교를 위한 구체적 전략을 세워 연회단위, 지방단위, 개교회에서 전도에 불을 지점화하여 영혼구원을 최후선 과제로 선정했다. 지역별 연합선교대회 개최, 목회자 재교육, 미지향교회의 지원, 농,어,관산선 선교 군군교 등 특수선교, 해외선교를 위한 선교사 양성과 기 선교지 지원

리과 신 선교지개척 등 해외선교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교육사업위원회(위원장 박상현목사)는 "새천년을 여는 감리교 교육"이라는 본부의 총주제를 재확인하고 앞날의 교육을 책임질 차세대 교육을 위한 획기적인 프로그램 개발의 시급성을 논의하였다. 기존의 교육을 강화하고 영아부교육,유아부교육에 역점을 두기로 했으며 증가되는 노년교육 프로그램과 새신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각 교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을 위한 각종 교재개발과 지도자 양성,속회교육을 강화키로했다.
사회봉사 사업위원회(박은진 목사)는 "삼감으로 선교의 터를 넓히는 경신도의 정신"에 2001년부터 사회봉사사업을 위한 교회예산의 10%예산선정, 남녀 장로선 지도자 양성을 위한 수련회와 세미나 개최 및 지원,농어촌 직거래 사업, 환경보전을 위한 구체적 사업연구 실천, 경신도 주일,교역자 보전주일 성수, 재해당할 자를 위한 긴급금성 등 일반 사업들이 책정되었다.
연회개회직후 결정된 석사교회는 임탁창 담임목사 지휘하에 교회안에 준비위원회(위원장 이학규장로)를 조직,12개부서로 업무를 분담하여 가동하고 회원들의 편의를 위한 숙박시설과 음식점 현황을 파악하고 점검하여 가격을 조정, 연회참석차량 스티커 제작, 이를 사전에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담과과는 보전위생과 친절한 교통안내를 협의하고 춘천시보에 게재하는 한편, 주차시설을 최대한 확보(500대)하고 안내,취사,잡대,서울버스운행 등 민폐없는 계획으로는 교육들의 희생적인 봉사와 일치협력으로 이뤄낸 성공적인 연회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춘천에서는 20여년만에 개최된 이번 연회가 IMF의 불황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축한 새 예배당(1500석)을 짓고 처음 모인 감리교 한겨레와 지방교회 경신도부(총무 한주성장로)에서는 커피와 국산차를 무료로 봉사하였으며 석사교회 연교교회에서는 음식값 1식 2000원에 재료비만 받아 회원들의 지출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회원들의 찬사를 받기도 했다.

